

죽음보다 못한 삶...삶 못지 않은 죽음

담양 출신 김민라 작가 첫 소설집 '고슴도치의 방' 출간 광주 5월의 죽음 등 다뤄...“문학은 내 삶을 비추는 등대”

“죽음보다 못한 삶, 삶 못지 않은 죽음”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한 인간의 죽음이라는 존엄 그 자체는 전제하더라도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다.
80년 5월 광주는 죽음이 도사리는 공간이었다. 혹자는 당시 “열혈의 공동체”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 “미래 공동체”였다고 본다.



〈문학들 제공〉

담양 출신 김민라 작가가 삶과 죽음 사이의 열거를 탐색하는 소설집 '고슴도치의 방' (문학들)을 출간했다. 2009년 지역 일간지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가, 10년 만에 펴낸 첫 작품집이다. 소설집이 주는 무게가 가볍지 않은 것은 '죽음'이라는 보편적 주제가 첫 창작집이라는 상징과 맞물려 목적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각각의 작품에는 광주 5월의 죽음, 일상에서 죽음이 임박한 인물의 상황 등 각기 상이한 사유의 작품들이 담겨 있다.

를 일궈 낸 것은 역설적으로 '삶이 아니라 죽음'이었다.
표제작 '고슴도치의 방'에서 화자의 아버지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G에서 자취를 하는 막내 외삼촌에게 반찬을 전해주러 갔다가 화를 당한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러나 그때 부상으로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혼자 있을 때 외롭지 말라며 고슴도치를 사다준다. 화자의 눈에 아버지는 세상의 폭력에 대응하지 못하고 고통에 갇혀 가시를 세우는 고슴도치에 닮아나간다.
저자는 죽음보다 못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마흔 줄의 미망'이 대표 작품이다. "주유소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이거든요. 아이 셋을 키우며 나이 마흔에 눈물자극제를 따 갔사라

도 하려는 여성의 이야기죠. 그런데 누구도 그러한 삶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시다.”

다른 작품 '카르페 디엠'은 죽음이 성큼 다가와 있는 운미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준영의 사랑이야기다. 작가는 “이 둘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다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죽음은 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작가는 어떻게 문학의 길로 들어섰을까. “어린 시절은 현재 모습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한다. 대개 그런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고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 노는 것을 좋아하듯 김 작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천성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소설 제목은 곧잘 잊어버리는데 스토리는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김 작가는 소설은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다고 했다. “어떤 때는 알 것 같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버려 백지상태가 된다”며 그 때의 허탈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으로부터 소설을 공부했다. 문단의 원로인 문순태, 한승원 작가와 이승우, 채희운 작가 등으로부터 소설이 무엇이며, 어떤 관점으로 소설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배웠다.

“내 삶에 있어 문학은 등대나 마찬가지로요. 고통스럽거나 방황할 때 오래 헤매지 않게 길을 안내해 주었으니까요.”

한편 김 작가는 조선대 대학원 국문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동신대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신대와 조선대에 출강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만만계 프로젝트 예술인·단체 모집

선정 단체 온·오프라인 모금 활동

‘문화예술로 광주를 만만(滿滿)하고 풍요롭게.’

문화재단은 올해도 ‘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만만계(萬萬)만(滿)계(이하 만만계)’에 참여할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모집한다.

우리 전래 협동조직인 ‘계’에서 착안한 만만계 프로젝트는 재단과 문화예술인·단체가 온오프라인 모금활동을 진행해 재원을 조성한다. 온라인 모금은 네이버 ‘해피빈’, 다음 카카오페이 ‘같이 가자’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모금이 이뤄진다. 특히 모금액에 1:1 매칭되는 이자가 지원된다는 특징이 있다.

만만계 프로그램은 ‘보듬어 드림’ (문화예술 소

의계중 보듬 프로그램), ‘문화가 든, 문화가 든’ (순수예술 창작분야), ‘나는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 (신진 예술가 지원 분야) 세 부문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문화예술인·단체는 모금액 달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갯날(100만원 이상 모금 달성/모금기간 종료)’이 되면 모금액 1만 원당 1만 원을 더해주는 ‘만만(萬萬)한 이자’를 매칭해 최종 지원받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만만계는 지난해 총 14개 프로젝트를 통해 1억8000만원 이상을 문화예술인·단체에 지원했다.

접수방법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gjcf_give@gjcf.or.kr)로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95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산강의 역사와 문화 아우르다

호남관광문화발전연구원

‘영산강, 전라도...’ 발간

영산강은 지천이 많아 자상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품고 있다. 오랜 시간 남도의 농토를 적시며 생명의 강으로 존재해왔다. 시원인 담양 가마골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장성의 황룡강, 화순에서 발원한 지석강 등 여러 강과 지천이 만나 나주에 이르러 영산강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현장을 답사한 결과물이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됐다. ‘호남관광문화발전연구원’(송남순 원장)이 펴낸 ‘영산강, 전라도 천년을 품다’는 영산강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 책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모당선사업 일환으로 출간됐으며 포토에세이와 스토리텔링 성격을 갖는다. ‘전라도’ 정명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된 이



사업은 ‘호남관광문화발전연구원’과 함께 김성후 동신대 교수와 강경호 ‘시와사람’ 발행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담양·장성·화순·광주·나주·함평·영암·무안·목포 그리고 신안바다에 이르는 과정을 현장 답사한 후 집필을 했다. 영산강 문화를 아우를 뿐 아니라 독자들에게는 비전을, 관광객에게는 안내서로 손색이 없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몽골·베트남 전통음악의 만남 ‘봄인가 봄, 화란춘성’

전남도립국악단 신춘음악회

23일 무안 남도소리 올림터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유장영) 신춘음악회가 오는 23일 오후 5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남도소리 올림터에서 열린다.

‘봄인가 봄, 화란춘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전남도립국악단과 함께 국내외 우수 예술인들이 출연한다.

우리나라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몽골 전통민요 선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금곡 협주곡 ‘바람의 노래’를 ‘2017 아시아퍼블릭랜드’ 대상을 수상한 윤은하씨와 협연한다. 베트남 대표 악기인 단보우 협주곡 ‘이농공감(異弄共感)’은 레 화이 프엉과 함께 선보인다. 또 거침없는 호소력 짙은 음색이 돋보이는 통소 협주곡 ‘풍전산곡’을 최 민씨와 호흡을 맞춰 연주한다. 모듬북협주곡과 ‘남도뱃노래’를 위한 여명’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무대에 올린다.

1986년 8월 창단한 전남도립국악단에는 창작·기



23일 ‘신춘음악회’를 여는 전남도립국악단.

악·무용·사물 등 120여 명의 단원들이 소속됐다. 2006년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선보이는 ‘도요공연 남도풍류’와 더불어 매년 창작 공연을 선보이며 남도의 전통 가·무·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전석 1만원 (단체·대학생 7000원, 학생 5000원,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무료). 문의 061-285-692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공연 예술 비평지 ‘행진’ 1~3호 나와

비평지 ‘행진 : 지역공연예술비평플랫폼’ 1-3호(사진)가 출간됐다.

격월 발행 예정인 ‘행진’은 서울 중심의 공연예술 비평과 담론에서 벗어나 지역의 공연예술 비평·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인자 독립서점 ‘소년의 서’ 대표가 발행인 겸 편집장을 맡았다. 홈페이지(actzine.kr)를 통해 장간호를 공개한 뒤 최근 출판물 1-3호를 펴냈다.

장간호는 광주문화예술인네트워크의 좌담 ‘왜 이 시기에 비평이 필요한가?’와 대중음악평론가 서정민갑씨의 칼럼 등으로 채워졌다.

2호에는 달빛포크협회에서 대구 대표로 활동하는 이준호 영남일보 기자가 쓴 ‘달빛통명-대구포크문화 2019년에 바란다’와 광주문화예술단체들이 광주시와 연 6번째 ‘문화난장토크’가 실렸다. 100번째 광복음악회를 연 ‘바다프로젝트’ 임용씨와 상이승라이터 박소영씨의 글도 담았다.

3호에는 타 지역 공연계 실태도 꼬집었다. 광주 문화예술인네트워크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흑



은 관주도 행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광주지역 축제를 다뤘고 축제가 낙하산 착륙장? (이미경),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선임 관련 논란’ (임현진), ‘인천문화재단 대표 직무계획 발표’ (오석근)도 담겼다. 시인 송경동씨는 시 ‘이 컨베이어벨트를 멈춰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추모했다.
구독료는 1권 8000원(1년 6만원)으로 행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행진’은 매달 15일까지 주제·형식 상한 없이 기고와 공연 소식, 광고를 전자우편(actzine@naver.com)으로 받고 있다. 문의 010-3256-262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어려분~ 부자되세요!

<h3>금강버티컬</h3> <p>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로스크린, 전동로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로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p> <p>☎062)514-6118, 010-5627-6119</p>	<h3>진주공방</h3> <p>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곡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p> <p>☎010-3906-1718</p>	<h3>초대화랑</h3> <p>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p>	<h3>백세쭈꾸미식당</h3> <p>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쭈꾸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p> <p>☎061)332-7313, 010-8224-7313</p>	<h3>무크광주세정점</h3>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입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p> <p>☎062)370-9258</p>	<h3>고흥나루터</h3> <p>동구 지산동 705-9 (법원빌딩) 허모(참영어), 샵비스트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p> <p>대표 모복자 ☎062)222-3092</p>
<h3>하얀나라운동화세탁</h3> <p>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동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켠부터 수거배달"</p> <p>☎062)269-4450, 010-4607-5773</p>	<h3>그집고기</h3> <p>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p> <p>대표 양병학 ☎010-6648-8842</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062)224-4869</p>	<h3>씨브웨이광주충장로점</h3> <p>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p> <p>☎062)236-1121</p>	<h3>청학철학원</h3> <p>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p> <p>청학 서광호 ☎010-9866-2332</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062)224-7687, 010-2611-7687</p>
<h3>양지공인중개사</h3>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p> <p>대표 정민각 ☎062)263-2223</p>	<h3>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062)222-6866</p>	<h3>으뜸공인중개사</h3> <p>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p> <p>☎062)263-5383, 010-6338-5383</p>	<h3>신신예술의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062)222-1936</p>	<h3>꼬야전통마사지전문점</h3> <p>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철 신용 본위</p> <p>☎010-9277-2011, 010-4624-8457</p>	<h3>기담철학원</h3> <p>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p> <p>☎062)432-1324</p>
<h3>석당화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062)222-3118</p>	<h3>토산철학원</h3> <p>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p> <p>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h3>국수나무용봉점</h3> <p>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p> <p>☎062)526-5475, 010-8621-5959</p>	<h3>루팡닭강정</h3> <p>북구 용봉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p> <p>대표 한경수 ☎010-3844-7145</p>		